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냇물처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옛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열어 첫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잘 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와 함께, 항상 새로운 희망에 대한 설렘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각오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닭띠 해, 을유년입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 사람들을 깨우는 닭처럼, 우리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도 새해에는 부지런한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4년을 돌아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사건, 이라크 파병, 체감경기의 하락, 실업, 북핵문제 등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방재 및 보험 업계에도 소방방재청 개정,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논란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항상 긴장 속에 살게 합니다.

우리 협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달려 가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는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눈과 생각과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 속에서 나 자신은 물론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설립 이후 30년 넘게 '화재예방과 적절한 사후보상'이라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특수건물의 방재활동에 앞장서 왔고, 미국방화협회를 비롯한 외국 기관 및 국내 대학, 연구소 등과 기술협정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세계화 및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화재안전 계몽을 위해 불조심 표어·포스터 현상공모 등 각종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보자.”

이 간단한 한 줄의 글이 지난 몇 십년동안 전 국민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불조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되어 화재예방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도 ‘전문 방재기관’ 하면 떠올려질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이듯, 우리 협회의 모습은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두 우리 협회가 비상(飛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 전체 연료의 반 이상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상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쏟는 만큼 탈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상의 순간은 자칫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거치지 않고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화재 및 폭발 분야뿐만 아니라 풍수재 등 다양한 재난분야에서도 인정받는 협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듯,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것도 즐겁게 노력한다면 우리 협회는 더 나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란 꼭 새로 만든 길은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길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간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길,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2005년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元트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곽정훈